

논문 7

실업고의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기현* · 박영실**

요약

이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자료로는 대표성을 갖는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4년 조사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2005년 조사에서 (전문)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여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졸업 후 취업(vs. 실업), 전일제 취업(vs. 시간제), 대기업 취업(vs. 중소기업),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취업(vs. 전공불일치 일자리)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곧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실업고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현장실습 중도 탈락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졸업 후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대신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 업체 및 업무의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졸업 후 대기업 취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졸업 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졸업 후에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9.5배나 높았고 현장실습을 받은 업체의 업종이 제조업일 때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3.3배나 높게 추정되었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I. 서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3년 산학교육진흥법(법률 제 403호)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현장실습제도는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 6878호)과 동시행령(대통령령 제 18911호)의 법률적 뒷받침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교육부훈령 제 583호)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으로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기업연수제도(internship), 직무시뮬레이션 실습, 샌드위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소개되고 적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산학협동에 비해서 중등교육단계의 산학협동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상호, 1995; 정지선 외, 1997). 중등교육단계에서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입시 및 진학지도와 고등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기업간 연계에 대해 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간에 괴리가 심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이며,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운영되거나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정철영, 1997; 정영순·석재은, 2000; 김기현, 2002; 우연재·이창훈·김기수, 2005).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몇몇 조사 결과들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현장실습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중훈·김영상·정향진(1998)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준비나 교육이 매우 미흡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현장실습을 실시한 후 평가회를 실시하는 학교는 17.6%에 지나지 않았다. 2003년의 실태조사 결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회, 2003)에 따르면, 2+1공고를 제외하고 최대 6개월 이내에 현장실습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고 학생 755명 중 55%의 학생들은 2학기 시작 전에 현장실습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50%의 학생들은 현장실습 업무가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무관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을 2003년에 제시한 바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 이수시기 및 인정범위 확대(1~2학년 이수, 방학중·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인정, 학교 창업동아리 활동, 파트타임 인정 등), 이수 교과목 및 유형의 다양화(독립교과 및 전문교과의 과정으로 운영하거나 특별활동 등으로 운영), 현장실습 전담교사제 운

영(학교 단위로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실습과전 전후의 안전 및 생활지도, 직업윤리 등의 지도 강화),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교육과정 정상운영 지도,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등이다.

그러나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시도한지 3년 만인 2006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 방안에서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여전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교의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운영계획 없이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학생·교사·기업체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파견현장에서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이 방안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경우로 제한하고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진행²⁾토록 했으며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활동(산학협력 프로그램, 창업동아리 활동, 관련 산업체 및 직업교육 전문가 초빙 강연 등)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현장실습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현장실습과 동일시되던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내활동 위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장실습이 산업현장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익히고 배운다는 제도 취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연구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최근 잇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본래 제도 취지에 따라 현장실습이 실업고 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대표성을 갖는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노동시장 성과로는 졸업 후 취업(vs. 실업), 전일제 취업(vs. 시간제), 대기업 취업(vs. 중소기업),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 취업(vs. 전공불일치 일자리) 등을 살펴보았다.

1) 이와 관련 2005년 12월 발표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7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정보게시판을 분석했을 때 대상 학교 중 81%(54개 학교)가 파견, 협력, 아웃소싱, 채용대행, 분사 등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이와 함께 같은 단체에서 간접고용 현장실습생 36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실습생들 중 대부분이 실습업체나 하는 일, 근무지, 현장실습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게다가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이나 장시간 중노동, 불법 야간노동 강요, 열악한 근무조건, 정신적·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조치의 예외적인 적용은 3학년 1학기부터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진행되어온 2+1 공교 교육과정(2+1공교는 2006년 3월부터 폐지되며 2006년 3월 입학생의 졸업시점인 2009년 2월까지만 68단위(1년)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이 운영됨)과 수산해양계열의 해기사면허취득관련학과, 그리고 협약학과 등 산학협력사업에서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었다.

II.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들이 졸업 후 직업으로의 이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가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이 밝혀졌고(Becker, 1964),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의 가족배경 요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의 교육수준이 자신들의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이 규명되었다(Blau and Duncan, 1967).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상당부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 이론만으로는 밝혀내지 못한 잔여부분(residual sector)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것은 ‘행운(luck)’(Jencks et al, 1972) 혹은 ‘우연성(contingency)’(Granovetter, 1995[1974])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라노베터는 이 부분을 ① 구직 시 사용된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the kind of social network used), ② 개인들의 경력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성들(contingencies within individual careers), ③ 고용주들의 구인 및 인사 관련 목표와 활동들(goals and activities of employers), ④ 실업과 경기 불황(unemployment and recession), ⑤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institutional and cultural sources of vari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Granovetter, 1995[1974]: 146-162).

이중에서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요인으로 원활한 학교-직업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Rosenbaum and Kariya, 1989; Kerckhoff, 1996; Rosenbaum, 2001). 이는 왜 특정 국가들의 경우 매우 낮은 청(소)년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1990년 청(소)년층(15~24세)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일본은 4.3%, 독일은 5.6%로 매우 낮지만 미국은 11.1%, 캐나다는 12.7%, 프랑스는 19.1%, 이탈리아는 31.5%, 스페인은 32.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OECD, 1995). 이와 관련 로젠바움과 카리야(Rosenbaum and Kariya, 1989)는 미국과 일본의 학교-직업 이행과정을 분석하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층 실업률과 안정적인 청(소)년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근거로 학교추천제 등 학교-기업간 연계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독일 역시 이원화제도(dual system)라 불리는 독특한 산학협동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각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과 통독에 따른 여파로 청(소)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³⁾. 이에 따라 이원화제도, 학교추천제 등과 같은 학교-기업간 연계 혹은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프로그램들이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3) OECD(2006)에 따르면, 2005년 청(소)년층(15-24세) 실업률은 일본이 8.7%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은 15.2%로 OECD국가 평균(13.7%)을 상회하고 있으나 프랑스(22.8%), 스페인(22.0%), 이탈리아(24.0%) 등 고 실업률 국가들보다는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일 중심 학습 프로그램들은 학교의 역할, 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일을 경험하는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Smith and Rojewski, 1993; Stern et al, 1995). 독일식의 이원화제도가 학교의 역할이 강조되고 산업현장에서 일을 경험하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면 일본의 학교추천제는 학교의 역할이 제한되고 학교교육이 종료된 후에 일을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로그램들은 이원화제도 외에 산학협동학습(cooperative education)⁴⁾, 학교기업,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 직업체험(job shadowing) 등이 있다. 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산업현장인 경우는 이원화제도, 학교추천제, 산학협동학습, 인턴십(internship) 등이 포함되며 학교생활과 일을 동시에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원화제도, 산학협동학습, 학교기업 등이 포함된다⁵⁾.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실업계열의 학생들이 졸업 후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이행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 브린톤(Brinton, 2000)에 따르면, 최근까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사적인 연결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사회자본이었다. 이러한 사적인 사회자본(private social capital)과는 구분되는 제도적 사회자본(institutional social capital)은 개인들이 특정한 제도 혹은 조직 속에 몸담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제도 혹은 조직의 일원이 되거나 접촉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사회자본이란 점에서 제도적이다. 이에 대해 로젠바움(Rosenbaum, 2001: 5)은 개인들의 사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에 비해서 청(소)년층 노동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기업간의 제도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가 그 동안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졸업 후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제도적 연결망의 효과는 여러차례 검증되어왔다. 브린톤과 카리야(Brinton and Kariya, 1998)는 직무탐색유형을 개별적인 직무탐색(atomistic job search), 개인간의 유대를 이용한 사회적 배태(social embeddedness), 학교추천 등 제도적 유대를 통한 배태(institutional embeddedness)로 구분하고 졸업 후 대기업 진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은 일본의 경우 대기업 진출에 있어 제도적 배태가 연령 코호트와 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가장 유용한 경로임을 주장하였다.

일본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학교추천제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산학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산학협동학습이 노동시장

4) 미국의 산학협동학습은 우리나라의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방안 이전까지 현장실습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실업계열 학교 학생들의 가장 주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산학협동학습으로 알려져 있다(안선영, 2006). 한편, 2006년 정상화 방안 이후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기업간 연계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추천제나 인턴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5) 직업탐색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일환으로 직업관련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탐색을 돕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면접 등을 통해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직업체험은 학생들이 직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종사자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해당 기업이나 회사 등의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교기업은 학교 내에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두고 이 업체에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직접 생산과 서비스, 판매 활동을 벌이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인턴십은 공식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될 시점에 실제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준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Hernstadt, Horowitz and Sum, 1979; Walsh and Breglio, 1976; Lewis, Gardner and Seitz, 1983). 이들의 주장은 현장실습이 학생들에게 학교와 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졸업 후 가진 일에 대해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나 졸업 후 성공적인 취업이나 높은 수입을 얻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집단을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NLSY)를 이용해 분석한 Lewis, Gardner와 Seitz(1983)는 CETA(the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of 1973)에 의해 지원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졸업 후 첫 해에 더 높은 수입을 갖거나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다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산학협동학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근거로는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장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받는 교육이 어떤 기업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받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Stern et al, 1995). 곧, 현장실습은 표준화된 숙련보다는 기업-특수적 숙련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받은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Grubb, 1989). 학생들의 일에 대한 경험이 현장실습과 같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아르바이트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업무의 질에 따라 일의 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곧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 반복적이며 숙련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교적 현장실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STWOA(the School-to-Work Opportunity Act of 1994) 등에 따른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훈련과 일자리 제공서비스와 연계된 일 경험은 원활한 일자리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tasz and Brewer, 1999; Wentling and Waight, 2000). STWOA에 따른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실업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안선영(2006) 역시 산학협동학습이 전공과 관련한 분야의 취업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1973년도에 시행된 CETA나 1977년에 시행된 YEDPA(the Youth Employment and Demonstration Projects Act of 1977) 등과는 달리 STWOA의 지원에 따른 현장실습이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Goldberger, Kazis와 O'Flanagan(1994)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장실습생을 보내는 학교와 실습을 진행할 기업 간에 훈련동의서(training agreement)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실습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성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각 현장실습생에 맞는 훈련계

획서(training plan)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장실습 전담교사(the coop coordinator)의 역할과 책임감이다. 전담의 의미는 말 그대로 현장실습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들의 역할은 적절한 일자리의 확보, 각 일자리에 적합한 학생들의 배치, 모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 업무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업무와 관련된 훈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다.

실업계 현장실습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많은 편이지만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만 김기현(2002)에 따르면, 기업연수제도, 학교추천제, 현장실습 등의 산학연계가 (초)대졸자의 원활한 이행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적 연계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고졸자들의 경우 산학연계 경험이 직업지위로 측정된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실업계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실업계 현장실습 유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졸업자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왔다면 이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혹은 폐지는 적절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장실습 중도탈락 유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이 끝까지 참여한 학생들보다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다면 앞선 분석의 결과는 재론의 여지가 있게 된다. 곧 현장실습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제도의 존재 유무에 있기 보다는 제도를 운영(학교당국, 교사)하거나 참여(학생 본인)하는 주체의 문제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탈락의 이유에 따라서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의 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현장실습은 각급학교의 자율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기간, 현장실습 업체 선정, 수당 지급 여부,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 수행 여부가 결정되었다. 현장실습의 질이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를 가져왔다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당국과 교사의 역할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자료와 연구모형,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제기하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 및 모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조사의 1차년도(2004)와 2차년도(2005)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EEP는 2004년 현재 중학교,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학생 6,000명,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 300명, 학급 담임교사 1,112명, 학부모 6,0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 중 실업고 학생은 2000명이며 이 학생들이 다닌 학교의 행정가 100명, 학급 담임교사 370명, 학생들의 부모 2,000명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KEEP는 종단조사 자료로서 매년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2005년의 조사의 경우 실업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회고적으로 묻고 있다. 이처럼 KEEP는 응답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현장실습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의 지도아래에서 응답한 설문 결과보다는 학생입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현장실습의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분석 표본은 각 분석 모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에서 제시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변수

이 연구의 분석 모형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모형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후 경제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다. 이 모형의 종속변수는 2005년 조사 당시의 경제활동 여부이며 실업을 기준범주로 실업대신 ① 비경제활동, ② 취업에 이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독립변수들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변수들과 개인적 특성 변수들, 그리고 학교 특성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2004년 졸업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현장실습 관련 변수들을 제외하고 2004년 조사 당시의 응답 결과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먼저 현장실습과 관련된 변수들은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 참여 여부,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 현장실습 참여기간, 현장실습 시간당 수당액에 대한 자연대수(log),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대기업 유무(300인 이상), 현장실습 업종이 제조업인지 유무, 현장실습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유무 등이다.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성별, 건강상태, 학교성적, 사교육여부, 아르바이트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학교 특성 변수들로는 학교유형이 국공립인지 유무, 학교 위치가 서울지역인지 유무, 학교의 계열(수산해양계열, 가사실업계열/공업계열) 등이 포함된다.

이 모형의 연구모형1은 현장실습 관련 변수 중 참여여부만을 포함하며 분석대상은 (전문)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된다. 연구모형2는 현장실습관련 변수들 중에서 중도탈락 여부만을 포함하며 분석대상은 실업계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업계 고등학생들 중 비진학자들이다. 연구모형3은 연구모형2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현장실습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현장실습 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한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모형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전일제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이항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이다. 이 경우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첫 번째 모형과 동일하며 연구모형 역시 세 가지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모형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대기업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항로짓 모형이며, 네 번째 모형은 졸업 후 취업한 일자리가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이다. 세 가지 모형에서 종속변수의 기준 범주는 각각 시간제(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중소기업,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이다.

IV. 교육고용패널자료 결과에 따른 실업고 현장실습 현황

이 절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05년 교육고용패널자료(KEEP)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 학교계열별, 지역별로 실업고 현장실습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1>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업고 졸업생은 48.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현장실습의 중도탈락 여부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20.0%가 현장실습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 둔 이유를 살펴보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 사유가 50.3%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측의 배치 부적절(6.7%), 산업체의 협약사항 불이행(4.9%), 산업체의 도산(2.5%)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실습기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가장 많은 28.2%의 학생들은 특별히 한 일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수업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5.2%,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이 1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상화 방안에서 진단하고 있듯이 현장실습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대체수업이나 대체실습과정에 투입된 학생들은 30.1%에 불과하며 학교에서 자습을 했다는 학생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현장실습 프로그램별 현황과 관련하여 장원섭·김형만·옥준필(1999)에 따르면, 공업계 고교의 경우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비율이 47.4%로 가장 높는데 비해서 상업계 고교는 직업관련 이론수업(30.4%)이나 학교 내 실험실습(28.6%)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장실습 프로그램별 현황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취업준비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는 대략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표 1〉 현장실습 현황

변수명	변수 설명	범 위	평 균	S. D.
현장실습 참여여부	예 48.6%(813명) 아니오 51.4%(861명)	0-1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	탈락했음 20.0%(163명) 완료했음 80.0%(650명)	0-1		
현장실습 중도탈락이유	신체적 부적응 19.0% (31명) 심리적, 정신적 부적응 31.3% (51명) 산업체의 도산 2.5% (4명) 산업체의 협약사항 불이행 4.9% (8명) 학교 측의 배치 부적절 6.7% (11명) 기타 35.6% (58명)	1-7		
남은 실습 기간 중의 활동 내용	학교에서 현장실습에 상응하는 실습과정에 참여하였음 4.9% (8명) 학교 수업에 참여하였음 25.2% (41명) 학교에서 자습하였음 11.7% (19명) 아르바이트를 하였음 18.4% (30명)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학원을 다녔음 2.5% (4명) 특별히 한 일이 없었음 28.2% (46명) 기타 9.2% (19명)	1-7		
현장실습 참여사업체 규모	10인 이하 24.9% (202명) 11인 이상-49인 이하 29.9% (242명) 50인 이상-299인 이하 22.3% (181명) 300인 이상-999인 이하 12.5% (101명) 1000인 이상 10.4% (84명)	1-5		
현장실습 참여일수		1-425	77.66	69.95
현장실습 일평균 근로시간		1-19	8.98	2.43
현장실습 수당수급여부	예 78.8% (641명) 아니오 21.2% (172명)	0-1		
현장실습 일평균수당액		210.83-114285.71	24119.71	12580.09
현장실습특성	전공분야와의 연관성 (812명)	1-5	2.47	1.25
	작업환경의 안전성 (813명)	1-5	3.36	0.92
	인격적인 대우 정도 (813명)	1-5	3.54	0.85
	업체가 업무를 잘 가르쳐주었는지 여부 (813명)	1-5	3.58	0.80
	현장실습 전담교사의 관심도 (812명)	1-5	3.11	0.96

이제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사업체의 규모는 11인 이상 49인 이하가 29.9%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한 현장실습생은 22.9%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는 현장실습 사업체의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24.9%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 수당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공 분야와의 연관성으로 5점 만점에 2.47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업체가 업무를 잘 가르쳐주었는지 여부의 경우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현장실습현황

		여성		남성	
		빈도	%	빈도	%
현장실습 참여여부	미참여	457	59.7	404	44.5
	참여	309	40.3	504	55.5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	완료	257	83.2	393	78.0
	탈락	52	16.8	111	22.0
현장실습 참여기간	1개월이하	89	29.3	83	16.7
	1개월-3개월	97	31.9	172	34.7
	3개월-5개월	55	18.1	100	20.2
	5개월-6개월	15	4.9	34	6.9
	6개월초과	48	15.8	107	21.6
현장실습 일평균근로시간	7시간이하	56	18.2	80	16.0
	7시간-8시간	129	42.0	137	27.4
	8시간초과	122	39.7	283	56.6
현장실습참여 사업체규모	중소기업	214	69.7	411	81.7
	대규모	93	30.3	92	18.3
현장실습수당 최저임금여부	최저임금미만	167	55.3	231	47.1
	최저임금이상	135	44.7	259	52.9
현장실습내용 전공일치도	불일치	201	65.0	263	52.3
	일치	108	35.0	240	47.7

<표 2>는 성별에 따른 현장실습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여학생(40.3%)보다는 남학생(55.5%)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 중도 탈락 여부도 남학생(22.0%)이 여학생(1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일수를 개월 수(1개월 20일 기준)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최대 6개월을 초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은 여학생(15.8%)보다는 남학생(21.6%)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대 1년간 참여가 가능한 2+1공고의 영향을 보인다.

현장실습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7시간 이하로 일

한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 16.0%, 여학생의 경우 18.2%로 높지 않았다. 본인 동의하에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를 살펴보면, 남학생 중 무려 56.6%가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39.7%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습 수당은 2004년 당시 연소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2,259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남학생의 47.1%, 여학생의 55.3%가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 내용의 전공 일치도를 살펴보면,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일한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 65.0%로 절반보다 훨씬 많았고 남학생의 경우도 52.3%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현장실습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교육적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표 3〉 학교계열별 현장실습현황

		농업 및 수산해양		상업 및 가사실업		공업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장실습 참여여부	미참여	47	52.2	548	59.3	266	40.3
	참여	43	47.8	376	40.7	394	59.7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	완료	35	81.4	308	81.9	307	77.9
	탈락	8	18.6	68	18.1	87	22.1
현장실습 참여기간	1개월이하	19	45.2	113	30.4	40	10.4
	1개월-3개월	7	16.7	138	37.1	124	32.1
	3개월-5개월	4	9.5	69	18.5	82	21.2
	5개월-6개월	0	0.0	15	4.0	34	8.8
	6개월초과	12	28.6	37	9.9	106	27.5
현장실습 일평균근로시간	7시간이하	13	31.0	81	21.7	42	10.7
	7시간-8시간	12	28.6	135	36.1	119	30.4
	8시간초과	17	40.5	158	42.2	230	58.8
현장실습참여 사업체규모	중소기업	39	90.7	286	76.5	300	76.3
	대규모	4	9.3	88	23.5	93	23.7
현장실습수당 최저임금여부	최저임금미만	35	81.4	197	53.4	166	43.7
	최저임금이상	8	18.6	172	46.6	214	56.3
현장실습내용 전공일치도	일치	17	39.5	257	68.4	190	48.3
	불일치	26	60.5	119	31.6	203	51.7

〈표 3〉은 학교계열별로 현장실습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공업고등학교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업 및 가사실업고등학교가 4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습 중도 탈락비율 역시 공업고등학교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지역별 현장실습현황

		서울 지역		서울 이외 지역	
		빈도	%	빈도	%
현장실습 참여여부	미참여	131	57.5	730	50.5
	참여	97	42.5	716	49.5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	완료	87	89.7	563	78.6
	탈락	10	10.3	153	21.4
현장실습 참여기간	1개월이하	24	25.0	148	21.0
	1개월-3개월	43	44.8	226	32.1
	3개월-5개월	27	28.1	128	18.2
	5개월-6개월	0	0.0	49	7.0
	6개월초과	2	2.1	153	21.7
현장실습 일평균근로시간	7시간이하	32	33.0	104	14.6
	7시간-8시간	24	24.7	242	34.1
	8시간초과	41	42.3	364	51.3
현장실습참여 사업체규모	중소기업	91	93.8	534	74.9
	대규모	6	6.2	179	25.1
현장실습수당 최저임금여부	최저임금미만	49	51.0	349	50.1
	최저임금이상	47	49.0	347	49.9
현장실습내용 전공일치도	일치	45	46.4	419	58.6
	불일치	52	53.6	296	41.4

현장실습 참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 및 수산해양고등학교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상업 및 가사실업 고등학교는 9.9%로 가장 낮았다. 현장실습의 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보다 길게 일한 경우는 공업고가 58.8%로 가장 높았고 농업 및 수산해양고가 40.5%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우는 농업 및 수산해양고가 81.4%로 가장 높았고 전공불일치 역시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는 서울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의 현장실습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역과 기타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기타 지역에서 진행된 현장실습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현장실습 중도탈락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이외 지역(21.4%)이 서울지역(10.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기간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서울지역이 2.1%에 불과했으나 서울 이외 지역은 21.7%로 10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장실습 내용의 전공일치도에 있어서 서울지역의 불일치 비율(53.6%)이 서울 이외 지역(41.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V. 분석 결과: 실업고 현장실습의 노동시장 성과모형

<표 5>는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경제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로 실업 대신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볼 것인데 다른 이행경로인 비경제활동의 경우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등 집단내의 이질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석상 일관된 결론을 끌어낼 수 없어 분석을 위한 잔여범주로만 간주하였다.

<표 5> 현장실습경험이 졸업 후 경제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비경활/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현장실습참여	-0.166	-0.132	-	-	-	-
현장실습중도탈락	-	-	-0.344	-1.349**	-0.648	-1.529**
현장실습참여기간	-	-	-	-	-0.089	-0.010
현장실습시간당수당액(로그)	-	-	-	-	-0.133	-0.073
현장실습참여기업규모_대기업	-	-	-	-	0.252	0.794
현장실습업종_제조업	-	-	-	-	0.331	0.240
현장실습내용전공일치	-	-	-	-	0.547	0.437
남성	-0.156	-1.145**	-0.177	-0.959 [†]	-0.116	-0.716
건강상태_양호	0.225	0.403*	0.217	0.333	0.215	0.295
성적	0.721*	0.552*	0.416	0.017	0.513	0.083
사교육여부	-0.453	-0.529	-0.579	0.163	-0.577	0.265
아르바이트여부	-0.466	0.087	-0.275	0.414	-0.119	0.557
학교유형_국공립	-0.416	-0.400	-1.004 [†]	-0.938 [†]	-0.973 [†]	-0.811
학교위치_서울	-0.492	-0.682	0.053	-0.445	0.072	-0.672
농업/수산해양계열_공업계열기준	-0.654	-1.342*	-1.230	-1.387 [†]	-1.593	-1.485 [†]
상업/가사실업계열_공업계열기준	-0.177	-0.379	0.406	0.126	0.412	0.335
절편	-0.281	1.102	-0.063	2.366	0.236	2.139
사례수	589		304		294	
-2LL	803.603		407.668		416.925	
Pseudo R-squared	0.111		0.188		0.225	

1)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여기에서 모형 1은 (전문)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실업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졸업 후 경제활동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특성들과 학교 특성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는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이 실업고 졸업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성별이나 학교성적, 건강상태, 그리고 학교계열 등이다. 곧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기 보다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실업보다는 취업을 할 확률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모형 2는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가 실업 대신 취업을 할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둔 졸업생들은 끝까지 참여한 졸업생들에 비해 실업자가 되는 대신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0.26배(=Exp[-1.349])나 낮게 추정되었다. 이를 역환산하면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둔 졸업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기 보다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끝까지 한 학생에 비해 4배가량 높다. 이 결과는 현장실습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이유의 일정 부분은 중도탈락자에 대한 학교의 관리부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현장실습의 최대 피해자는 개인적 사유나 파견된 업체의 문제,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한 학교의 문제로 중도에 현장실습을 그만둔 실업고 졸업생들임을 알 수 있다. 앞선 현장실습 실태분석에서 현장실습을 중도에 그만 둔 학생 중 절반 이상은 수업도 듣지 않고 대체실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3은 현장실습 업체와 업무내용의 특성이 졸업 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대로 현장실습 참여기간이 길거나 시간당 수당액이 적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고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일했을 때 취업자가 될 가능성은 늘어나며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모든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형에서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 변수의 계수값은 모형 2보다 오히려 증가(-1.349 → -1.529)하고 있다. 이는 현장실습의 문제가 현장실습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질(저임금, 장시간 노동, 중소기업 일자리, 단순 업무, 전공불일치 업무 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의 질(현장실습의 사전계획, 현장점검 및 순회지도, 사후 관리 및 평가 등)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전일제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실업고 졸업생 중 졸업 후 2005년 조사당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업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모형 1에서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대신 전일제 취업을 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업위험을 회피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결정요인들 중 특징적인 것은 고교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치는 효과이다. 곧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은 경험이 없는 졸업생에 비해 졸업후 시간제 대신 전일제에 취업할 가능성이 0.58배(=Exp[-.550])나 낮다. 재학 중 일에 대한 경험은 학교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아르바이트와 같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곧 대다수의 실업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하거나 아르바이트라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학 중에 일을 경험하고 있다.

〈표 6〉 현장실습경험이 졸업 후 전일제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전일제/시간제	전일제/시간제	전일제/시간제
현장실습참여	0.310	-	-
현장실습중도탈락	-	0.248	0.293
현장실습참여기간	-	-	0.106
현장실습시간당수당액(로그)	-	-	-0.057
현장실습참여기업규모_대기업	-	-	0.618
현장실습업종_제조업	-	-	-0.548
현장실습내용전공일치	-	-	0.591
남성	-1.358***	-1.582**	-1.453**
건강상태_양호	0.275*	0.138	0.145
성적	0.005	-0.066	-0.104
사교육여부	-0.459	-0.420	-0.449
아르바이트여부	-0.550*	-0.602	-0.648
학교유형_국공립	0.442	1.266	0.734
학교위치_서울	-0.461	-0.816	-0.623
농업/수산업계열_공업계열기준	0.113	0.152	0.263
상업/가사실업계열_공업계열기준	-0.012	-0.017 [†]	0.044
절편	0.961	2.211 [†]	1.982
사례수	403	210	204
-2LL	458.864	234.029	220.525
Pseudo R-squared	0.097	0.102	0.153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역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4)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9.9%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9.5%는 임금삭감을, 2.8%는 폭행피해를, 0.4%는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2006. 1. 1 ~ 1. 31)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한 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점검사업장의 64.8%에 해당하는 307개 사업장에서 586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정상화방안은 경제적 목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도적인 관리

7) 이는 2005년 노동부 등 4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이 추진된 이후의 결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지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5년 이전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점검대상 사업장 420개 중 범위 반 업체는 110곳으로 법 위반율은 26.2%에 불과했으나 2004년 법 위반율은 58.6%(1,241업체 중 727곳)로 증가한 바 있다(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2005).

장치가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현장실습에 따른 폐해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 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현장실습 참여는 전일제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대신 아르바이트 경험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모형 2는 현장실습 중도탈락여부가 전일제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모형 3은 현장실습 업체와 업무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장실습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표 7> 현장실습경험이 졸업 후 대기업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중소기업
현장실습참여	-0.044	-	-
현장실습중도탈락	-	-1.347*	-1.801**
현장실습참여기간	-	-	-0.048
현장실습시간당수당액(로그)	-	-	0.112
현장실습참여기업규모_대기업	-	-	2.249***
현장실습업종_제조업	-	-	1.183*
현장실습내용전공일치	-	-	0.278
남성	-1.270***	-0.662	0.081
건강상태_양호	0.297*	0.244	0.312
성적	0.366†	0.264	0.267
사교육여부	-0.914*	-0.985	-1.596*
아르바이트여부	-0.106	-0.416	-0.889†
학교유형_국공립	-0.053	-0.046	0.374
학교위치_서울	-1.715***	-2.309**	-1.401
농업/수산업계열_공업계열기준	-20.695	-20.607	-20.055
상업/가사실업계열_공업계열기준	0.037	0.422	1.214*
절편	-1.464†	-1.085	-4.365**
사례수	400	208	202
-2LL	469.035	232.218	162.393
Pseudo R-squared	0.231	0.268	0.561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이어서 <표 7>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대기업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2에서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현장실습을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의 경우 끝까지 참여한 학생에 비해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0.26배(=Exp[-1.347])나 낮다. 이 역시 역환산하면 현장실습을 끝까지 참여할 경우 대

기업 진입 가능성은 4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모형 3에서 현장실습 업체 및 업무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졸업 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9.5배(=Exp[2.249])나 높다. 반대로 이 결과는 현장실습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제도 취지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업종이 서비스업/기타 업종이 아닌 제조업인 경우에도 대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곧 졸업 전에 현장실습을 받은 업체가 제조업인 경우 서비스업인 경우보다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3.3배(=Exp[1.183])나 높게 추정되고 있다.

<표 8> 현장실습경험이 졸업 후 일자리 전공일치여부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전공일치/불일치	전공일치/불일치	전공일치/불일치
현장실습참여	-0.025	-	-
현장실습중도탈락	-	-0.843	-0.777
현장실습참여기간	-	-	0.109
현장실습시간당수당액(로그)	-	-	-0.029
현장실습참여기업규모_대기업	-	-	-0.075
현장실습업종_제조업	-	-	-0.591
현장실습내용전공일치	-	-	0.183
남성	-0.293	-0.228	-0.227
건강상태_양호	0.309*	0.299	0.254
성적	-0.135	0.007	-0.109
사교육여부	0.630	1.092	1.243
아르바이트여부	-0.271	-0.504	-0.563
학교유형_국공립	-0.171	0.292	0.381
학교위치_서울	-0.103	0.562	0.341
농업/수산해양계열_공업계열기준	0.227	0.038	-0.496
상업/가사실업계열_공업계열기준	0.005	-0.280	-0.267
절편	0.010	-0.257	0.310
사례수	401	208	202
-2LL	524.706	264.947	252.793
Pseudo R-squared	0.041	0.093	0.128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임

마지막으로 <표 8>은 현장실습 경험이 졸업 후 일자리의 전공일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 현장실습 참여 여부(모형 1)나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모형 2), 현장실습 업체나 업무의 특성(모형 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 결론

교육고용패널자료(KEEP)를 이용하여 실업고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실업고 졸업생들은 전체 응답자 중 4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실습 참여자 중 중도탈락비율은 20.0%였다. 중도탈락 이후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도탈락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학습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참여사업체의 규모가 10인 이하의 경우가 24.9%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 무려 56.6%, 여학생의 경우 39.7%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연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을 밑도는 낮은 수당을 받은 경우는 남학생의 경우 47.1%, 여학생의 경우 55.3%로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별 현황에서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중도탈락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고 일 평균 근로시간이 연소자에 대한 근로기준법보다 길게 일한 경우도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에서 서울 지역보다는 서울 이외 지역의 실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탈락율은 2배,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무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업고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취업(vs. 실업), 전일제(vs. 시간제), 대기업 취업(vs. 중소기업 취업), 전공일치 일자리 취업(vs. 전공불일치 일자리 취업)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곧 현장실습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실업고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졸업 후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4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대신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 업체 및 업무의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나 졸업 후 대기업 취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졸업 전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졸업 후에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9.5배나 높았고 현장실습을 받은 업체의 업종이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일 때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3.3배나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정상화 방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관리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실습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관리부재가 졸업 후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연두

에 둔다면,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관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이에 대한 필요성은 협약학과, 2+1공고 등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을 통해 학비,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요구를 해소하려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현장실습보다 보호 장치가 더 없으며 졸업 후 교육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실습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일제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과 같은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대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체험한 학생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고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교육을 지향하는 실업고 설립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업고 졸업생들의 60% 이상은 실제로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이러한 변화 상황에서 그 졸업 근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여전히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훈·김영상·정향진. 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2003.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김기현. 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2): 65-93.
- 김상호. 1995. “직업교육의 산학협동 개혁방향.” 『직업교육연구』 14(1): 165-174.
-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2005.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 안선영. 2006. “펜실바니아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에 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pp. 31-45.
- 오경흡·송철기. 2005. “현장실습 교육활성화를 위한 학교기업 도입과 운영 방안.” 『공학교육연구』 8(1): 60-70.
- 우연재·이창훈·김기수. 2003. “산업체 담당자의 요구 분석에 터한 공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개선 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0(2): 12-22.
- 장원섭·김형만·옥준필. 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영순·석재은. 2000. “청소년 고용증진을 위한 영국과 한국의 직업교육 제도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16(2): 109-145.
- 정지선·이병준·손유미·김덕기. 1997. “직업교육훈련 기관간의 연계방안.” 이종성 외. 『교육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1997.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방향.” 『직업교육연구』 6(1): 1-30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5.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BER General Series 80. New York.
- Blau, P. and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rinton, M. C. and Kariya, T. 1998. "Institutional Embeddedness in Japanese Labor Market." in M. C. Brinton and V. Nee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Soci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181-207.
- Brinton, M. C. 2000. "Social Capital in the Japanese Youth Labor Market: Labor Market Policy, Schools, and Norms." *Policy Sciences* 33: 289-306.
- Goldberger, S., Kazis, R. and O'Flanagan, M.K. 1994. *Learning Through Work: Designing and Implementing Quality Worksite Lear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New York: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Granovetter, M. 1995[1974].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2nd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rrnstadt, I.L., Horowitz, M.A., and Sum, A. 1979.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ontribution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at the Secondary Level*.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 Hoerner, James L. and James B. Wehrley. 1994. *Work-Based Learning : The Key to School-to-Work Transition*, McGraw-Hill.
- Jencks, C., Smith, M., Acland, H., M. J. Cohen, D., Ginits, H., Heyns, B., and Michelson, S. 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Kerckhoff, Alan C. 1996.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Boulder: Westview Press.
- Lewis, M.V., Gardner, J.A., and Seitz, P. 1983.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nd Its Effects*. Columbia, OH: Ohio University.
- OECD. 1995. *OECD Employment Outlook*.
- OECD. 2006. *OECD Employment Outlook*.
- Rosenbaum, J. and Takehiko Kariya. 1989. "From High School to Work: Marke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6):1334-1365.
- Rosenbaum, J. 2001. *Beyond College for All: Career Paths for the Forgotten Half*.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Stasz, C. and Brewe, D.J. 1999. *Academic Skills at Work: Lessons from Three High School Programs*. Berkeley, CA: NCRVE.
- Stern, D., Finkelstein, N., Stone III, J. R., Latting, J. and Dornsife, C. 1995. *School to Work: Research 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The Falmer Press.
- Walsh, J. and Breglio, V.J. 1976. *An Assessment of School Supervised Work Education Programs. Part II: Urban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and Followup Study*. San Francisco: Olympus Research Centers.
- Wentling, R.M. and Waight, C.L. 2000. "School and Workplace Initiatives and Other Factors that Assist and Support the Successful School-to-work Transition of Minority Youth."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37(2): 5-30.

Abstract

The Impacts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Vocational High Schools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Kim, Ki Hun(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Park, Young Shil(Sungkyunkwan University)

This examines the impacts of school-to-work programs in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Especially, we focus on cooperative education (co-op) programs that are wide-spread in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We analyze follow-up data (2004-2005) from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The labor market outcomes are measured by employment (vs. unemployment), full-time job (vs. part-time job), large firm entrance (vs. small or medium firm) and matching job (vs. mismatching job).

As a results, we fail to find positive effects of co-op programs on the outcomes for high school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with co-op programs found no lower unemployment and higher rates for full-time job, large firm entrance or matching job with their major fields. Then, if students completed the whole programs of co-op, they were less likely to be unemployed and more likely to enter a large firm than co-op drop-outs. And participation in a co-op program of large firm was positively related to large firm entrance in the first year after school.

토 론 문

『실업계 현장실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안 선 영*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문적 논의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도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인해 실업계 교육의 전통적인 수혜자였던 대학 미 진학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김기현 박사의 이번 연구는 실업계 학생들,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처하고 있는 당면문제인 취업과 취업 준비과정의 일부로서의 현장실습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발표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60%가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통계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진학동기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대학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였고,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인 지원 학생 수를 능가함으로써 대학문이 실질적으로 완전 개방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대학 진학이 누구에게나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학업 수행 능력이나 진로 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러한 대학진학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졸업생의 40%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느 교육기관도 대치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업계 졸업생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준비교육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거나 기존의 실업계 교육의 역할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현장실습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김기현 박사의 발표문은 실업계 현장실습의 참여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대학교 BK21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 박사후 연구원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가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장실습의 질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현장실습의 참여 여부가 졸업 후 경제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진로준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실습이 실업계 학생들의 교육에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연구 결과가 현장실습의 바람직한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교사, 기업체, 학생,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실습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모형은 현장실습 중도탈락 여부가 취업/실업 여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현장실습에서 중도탈락하면 취업을 하기보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4배가량 높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사유, 파견된 업체의 문제, 일자리가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인적인 자질이나 태도에서 현장실습 중단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현장실습의 시작단계에서 학교가 믿을만한 파견 기업을 정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키고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결국은 현장실습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기현 박사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학교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활동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에 더해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장실습 경험을 하고, 중도탈락을 하는 것은 단순히 중단 이후의 시간을 잘못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시각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한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학교 측이나 기업체들이 현장실습 중도 탈락을 그 학생의 자질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차후 취업기회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모형은 현장실습 업체 및 업무의 특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졸업후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보다 9.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의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제조업 분야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어떠한 특성들이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실습의 프로그램 계획과 내용, 학교와 기업체간의 상호작용, 전담교사의 역할,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 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현장실습의 측면이 어떻게 노동시장 성과들과 연관되는지를 살핌으로써 효과적인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박사는 현장실습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대학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은 엄연히 다른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현장실습의 운영이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목표에 따라 현장실습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 경험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각각의 진로에 있어 현장실습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계획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그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준비를 학교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은 미 진학 학생들이 보다 나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